

전북연구원장 선임절차 까다로워진다

공모주체 도 → 연구원 변경 등 절차 개선... 객관성·공정성 강화

전북연구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전북도는 28일 전북연구원 이사회 개최 결과, 전북연구원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장 공모 추진 주체가 도에서 연구원으로 변경되고, 원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독립성을 가진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절차의 개선은 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모 주

체를 전라북도에서 전북연구원으로 변경했다.

도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원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왔으나, 연구원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도 강화했다.

통상적으로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도청내 실·국장 2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4인 등 총 7인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왔으나, 도, 도의회, 연구원 이사회에서 각각 3인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9인으로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각 기관으로부터 심사 전담 추천 받아 운영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도 동일한 날에 실시하는 등 노출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추천관련 일부 불명확한 규정도 명확화했다.

심사 후 몇 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지, 후보자의 추천순위를 명시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했으나,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2인 이내를 이사회에 가나다 순으로 무순위로 추천하는 것으로 명확화 했다.

전문성있는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심사기준과 방법도 개선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대상 여부만

결정하고, 원장후보자 추천은 면접심사 결과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서류심사 결과 30%와 면접심사 결과 70%를 합산하여 원장후보자 추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심사요소에 지역발전과 관련된 경력 및 능력, 국가정책 반영 경험이나 기여도, 국가·도정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능력 등도 포함해 전문성을 갖춘 원장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원장 선임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절차 개선이 미래지향적 비전과 경륜,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전북연구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합니다”

병원 점검 결과 특이사항 無

전북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병원 모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도 역학조사관과 전주시·익산시 의약업무 담당자로 안전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21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2일에는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14개시·군 감염병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점검은 인큐베이터 안전관리, 공기오염 및 감염위험으로부터 환자 보호를 위한 감염관리수칙 준수 여부, 신생아

의약품 투여시 5Rights 철저 준수여부,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전담인력 규정 준수 등으로 도내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3개병원(전북대, 원광대, 예수) 모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북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만혼과 노산의 증가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저체중아가 증가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철저한 감염관리는 물론 면역이 취약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은 철저한 감염관리시스템을 유지해야하며 환자를 대할 때는 가족의 마음으로 매 순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병원 방문문화의 개선 및 적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총력

특교세 역대 최고 390억 확보

전북도는 28일 2017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90억원을 확보했다.

이것은 2016년 337억원 보다 53억원(16.1%)을 더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대 확보다.

2017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 및 교량 정비 99억,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책비 75억,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등 생활안전 개선 48억, 교량 등 내진보강 47억, AI 방역 대책비 25억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안전시설 정비 96억 등이 투입됐다.

도로가 개선되고,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게되고, 지진에도 손상되지 않

게 교량이 튼튼해 지고, 우리 주변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안전해 지고, 특히 경주·포항 지진 이후 도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쓰이게 된다.

도 이현용 도민안전실장 “2018년 전라북도 사자성어인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내년에도 올해 결과를 만족하지 않고 재난안전특교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지역 내 안전 톨나비퀴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어 작동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소통, 공공,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평시에 예방 예방과 반복적인 훈련, 체계화된 매뉴얼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도전하는 내일, 사람을 향한 꿈'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 학생 김다인, 배현빈 학생이 제작한 액자를 전달받고 있다.

‘집단 발암’ 익산 장점마을 원인 조사 착수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수행기관으로 서울소재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선정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8일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용역 추진기관으로 '환경안전건강연구소'를 최종 선정, 용역 본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22일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입찰 공고,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입찰에 참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적격 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용역 수행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최종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용역 본계약을 체결, 연구소로 하여금 2018년 12월까지 1년간 오염물질 배출원평가, 지역환경

오염평가, 주민건강조사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29일 익산 장점마을합라천주교신도리공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도 신현승 환경복지국장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합라면 소재 장점마을 주민들은 인근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안환자가 집단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다.

/김진성 기자

도 감사관실,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 감사관실은 감사원이 평가하는 2017년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8일 감사원에서 기관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7년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중앙부처를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개 기관을 선정했다.

중앙부처는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을 우수 처리기관으로 선정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관실 내에 민원상담방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만 감사원 이첩 민원 등 400여 건의 고충민원 및 도민 생활불편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한 것

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이번 기관 표창은 감사관실 직원들이 민원인을 내 부 모형제라고 여기고 노력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감사원 이첩민원 및 도민 고충민원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 광역지자체 전국 1위 등을 수상하며 청렴 전북 실현에 앞장 서고 있다.

/김진성 기자

희망 2018 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고창군 심원면
 - ▷ 화산마을 200,000원
 - ▷ 아산마을 270,000원
 - ▷ 수다마을 138,000원
 - ▷ 난호마을 400,000원
 - ▷ 계명마을 346,000원
 - ▷ 김민선님 113,000원
 - ** 계 1,467,000원
- ◆ 부안군 백산면
 - ▷ 소수마을 130,000원
 - ▷ 임방마을 300,000원
 - ** 계 430,000원
- ◆ 정읍시
 - ▷ 연지동 주민일동 3,425,580원
 - ** 계 3,425,580원
- ◆ 정읍시 정우면
 - ▷ 삼산마을 129,000원
 - ▷ 송배마을 129,000원
 - ▷ 신제마을 86,000원
 - ▷ 외장마을 141,900원
 - ▷ 우산마을 43,000원
 - ▷ 정토마을 107,500원
 - ▷ 창남마을 129,000원
 - ▷ 천두마을 120,400원
 - ** 계 885,800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